

유기농 축산자재 생산단지 조성

순창군, "토탄 활용, 악취저감에 큰 효과"… 60억 투자 사업계획 수립

순창군이 토탄을 활용해 폐비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발생 문제를 획기적으로 저감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저비용 유기농 축산자재 생산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군은 고품질 폐비 생산 및 폐비 생산 중에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금과면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및 순정축협에서 톨팍을 대신해 토탄을 사용해 실증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악취 원인 물질인 황화수소 및 메틸메가스의 발생을 각각 최대 90% 이상 획기적으로 줄여 악취저감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사업에는 총 280톤의 토탄이 사용됐다.

토탄은 탄화정도가 낮은 석탄의 일종으로 주로 저습지나 소택지 등에서

퇴적된 퇴적물로서 생물의 유체가 불완전 분해된 물질이 퇴적된 것이다. 토탄은 또한 축사의 깔개로서 사용할 때 기존 톨팍대비 축사 악취발생을 90%까지 감소시키고 해충량 감소 및 사용기간 연장 등 장점도 있는 걸로 나타났다.

부숙도 및 열기치환능이 높아 폐비 생산 원료로서도 큰 이점이 있다.

군은 이번 실증사업의 결과를 기반으로 금과면 매우리 일대 8.7ha 균유지를 활용해 총 6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유기농·축산 자재 생산단지 조성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중앙부처 및 전북도를 상대로 단지조성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전라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들의 참여한 발표평가회도 진행했

다. 발표회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해 사업의 당위성과 순창군의 장점들을 설명했다.

참석 평가위원들도 사업 추진에 긍정적 평가를 내림으로써 향후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 황숙주 군수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광폭행보를 이어가 사업 성공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토탄 활용 실증사업 성공을 통해 폐비나 축사 운영시 고질적 문제로 제기됐던 악취저감에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순창군이 전국 제일의 저비용 유기농업 자재 생산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유기농 축산자재 생산단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은 정치, 경제, 국제정세 등 어렵고 복잡한 소식에서 한 발 물러나 따뜻하고 정 넘치는 우리 이야기를 전하는 '주민기자'가 양성되고 있어 지역의 새바람이 기대된다.

임실군, 주민기자 양성... 지역소통 '새바람'

'주민기자학교' 운영... 축제·행사 등 쉽게 전달할 '전도사' 역할 기대

임실군은 정치, 경제, 국제정세 등 어렵고 복잡한 소식에서 한 발 물러나 따뜻하고 정 넘치는 우리 이야기를 전하는 '주민기자'가 양성되고 있어 지역의 새바람이 기대된다.

임실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장일수)는 지역민의 참여 확대와 이웃의 이야기를 전해 줄 '주민기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이 직접 각 마을을 찾아 지역정보를 발굴하고 취재하는 기자단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총 56명

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올해는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오는 2일까지 매일 임실읍사무소 2층에서 신입 주민기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 출신 김수돈 평화동마을신문 편집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글쓰기, 사진촬영, 팟캐스트 등 최신 언론 동향을 반영하는 알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현재 지역 소식을 전하는 소식지 창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정기간행물 등록을 계획하고 있다.

양성된 주민기자는 지역의 축제, 마을 이야기, 문화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쉽고 친근하게 전하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일수 위원장은 "주부, 농민,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고 있어 각양각색의 시각에서 바라본 색다른 지역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며 "현장을 직접 찾아 기획하고 취재한 기사를 통해 소통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통일을 울려라'... 청소년 골든벨 성료

순창지역 고교 1~2학년 300명 참여

우리군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017 청소년 통일골든벨 행사가 지난 29일 순창군 실내체육관에서 순창고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번 행사는 민주평통순창군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순창의 미래이자 희망인 학생들에게 우리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평화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데 도움을 줬다.

예선에서 O·X 퀴즈와 패자부활전을 통해 본선진출자 50명을 선발했다. 본선에서는 주관식 문제로 최종 우승자가 선발됐다.

본선 진출자 중 제일고 1학년 박서현 양이 최종 우승자로 선발되

어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했고 우수상에는 제일고 1학년 신수빈, 순창고 1학년 송주환, 순창고 1학년 김지연 학생이 각각 선발됐다. 이외에도 장려상 4명, 격려상을 5명의 학생에게 수여해 성취감을 느끼게 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서현(제일고, 1학년)양은 "평소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통일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우승 소감을 전하였으며, 오늘 행사를 주최한 민주평통 순창군협의회 김성수회장은 "우리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힘, 그리고 지혜를 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꿈을 실어줄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소식통

벼병해충 항공방제 추진단 회의

남원시 벼 병해충 항공방제 추진단(단장 이은숙)은 지난 29일 운봉농협 회의실에서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벼 병해충 항공방제 업체 선정, 약제 결정, 방제 시기 조율 등을 결정했다.

남원시의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와 4개 지역 농협(남원농협, 운봉농협, 지리산농협, 춘향골농협) 협력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시의 역점 사업이며, 이번 추진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들이 결정된 만큼 희망농가 신청 접수와 그에 따른 방제 면적, 방제지도 작성 등 부수적인 과제들만 남게 되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3단계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순창군은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근무할 2017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0여명을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순창 주민으로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나 실업자로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다. 기본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 1일 6시간 주 30시간, 급여는 시간당 6470원의 임금과 간식비 3000원이며 주·월차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모집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9일까지로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아름다운 섬진강길 경관 조성 박차

임실군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섬진강길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하면서도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지역내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을 위해 3억6000만원의 국가예산을 확보, 섬진강 하천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경관개선 사업 등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개월간 덕치면 물우리에서 천덕리 구간의 유지보수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주요사업내용은 하천변내 제초 작업 및 잡목제거를 통한 경관개선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조경수 식재와 화장실 등 시설물 유지보수 등이다.

특히 이 구간에 조성된 자전거도로의 일부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 2개소(물우리

137m, 천덕리 120m)에 대한 선형개량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자전거도로 선형개량사업은 기존의 자전거도로 구간 중 매끄럽지 못한 곳을 완만한 도로로 만들고, 차도와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자전거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하천시설물 정비와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제거 및 자전거도로 개선 등에 힘을 기울여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하천 보수와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관리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 투입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서 지역내 하천을 조성해 나가는 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수두 예방, 개인위생 철저"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불철수두 환자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해 학부모, 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시보건소에서는 우선, 수두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제때 접종을 하고, 어린이의 예방 접종력을 확인하여 빠뜨렸다면 지금이라도 접종하며, 생후 12~15개월 1회 예방접종 권장하며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1회 무료 접종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침예절과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발진 등 수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아 전염력이 없어졌다고 의사 가 관정하면 어린이집·학교에 등원·등교하도록 권고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이 참좋다. 순창종합사무기기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